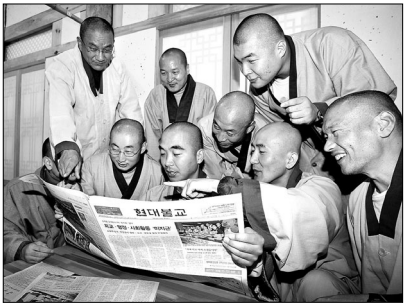


1천원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최상의 보시

교도소·군법당·병원 등 1321곳에 전달

“현대불교 통해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을 알아갑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 땅의 불교정도를 이루는데 현대불교신문이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씨(전주교도소)

“군생활 동안 잠깐씩이나마 불교 기사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훌륭한 기사와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 후에도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열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김혁민 씨(5사단 정병)

“삶이 허망하다 느낄 때 법문 한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데 신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출소할 때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안○○씨(안양교도소)

“보내주시 신문을 보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덕분에 불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진 것 같아요.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씨(충남 공주치료감호소)

“공장 식구들 중 불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법문을 들려보며 신문 속 글자 한자 한자가 버릴 것 없이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행스님의 법문을 읽고 가슴에 새기게 큰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히세요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사구계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大千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불교도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815명의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매주 1321부의 신문이 군장병·교도소 수형자·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법보시된 신문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한 명의 포교사이자 한 권의 경전이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일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
- 법보시 계좌번호: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법보시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 (02)2004-8200(대표), 8212(직통)

■ 법보시 발송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경찰	경찰서	168	복지단체	복지관련대학	30
	감별소	3		복지단체	46
	교도소	338		복지협의회	4
교화기관	교정청	3		부랑인복지	3
	구치소, 김호소	82		이동복지	23
군부대	소년원	30		의료기관	97
	군법당	399		장애인복지	10
병원	군병원	10		지역복지	20
	법당	13		청소년복지	10
복지단체	기립복지재단	6		합계	20건
	노인복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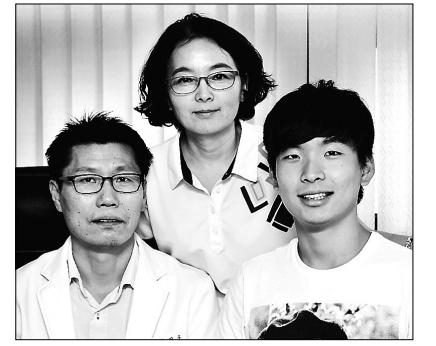
“배운 것 나누는 삶 살고파”

매일 천 원씩 법보시한 백진구씨 가족

백진구씨 가족(사진)은 지난해 8월부터 매일 천 원씩 법보시를 해오고 있다. 매일 동전 한 닢 저금통에 넣는 것도 쉽지 않은 일, 백진구씨에게 하루마다 기부하는 이유를 물었다.

백 씨는 “하루에도 나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날 받은 것을 곧바로 회향하고 싶었다”며 “부처님께서 법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라 하신 만큼 내 작은 기부로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유익함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인불교대 경전반을 시작으로 금강선원, 현재 봉은사에 이르러까지 20년간 불교대학을 거치며 교리를 공부했다. 백 씨는 “내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다. 내가 가진 지식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 씨는 차 안에 금강경 서적이자 독경CD 등을 항상 소지



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백 씨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곳의 부처님들을 소개하는 ‘화엄만다라’와 불교 기초 교리를 알려주는 ‘교리’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뜻을 이루면 궁극의 행복을 얻는 ‘행복바라밀’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 유익함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gmail.com

강덕순 강명옥 강명자 감미자 강민정 강석민 강수옥 강순희 강승태 강영내 강재호 강주석 강황진 경연희 고경옥 고한순 고현진 고희문 공평근 광명순 광준정 광영석 광은아 광준자 관음사 구암사 권경숙 권규열 권두상 권익중 권정화 권효심 금강사 금담스님 기림사 김경재 김경숙 김경숙 김경희 김규순 김규연 김금순 김기석 김기홍 김길봉 김나령 김나연 김나영 김남규 김남숙 김다정 김동우 김명란 김명숙 김명순 김명희 김무재 김문순 김미래 김미리 김미숙 김미연 김미연 김미원 김미향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주 김병호 김병희 김비연 김상근 김상분 김생근 김석순 김선아 김선영 김선에 김선옥 김성수 김수옥 김수혜 김수희(2) 김순남 김순복 김순분 김순희 김승재 김승훈(2) 김신숙 김연수(2) 김영규 김영성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2) 김영애 김영옥 김경자 김경재 김경팔 김경해 김옥선 김옥수 김옥순 김용만 김용순 김용호 김우기 김우선 김윤관 김윤성 김윤자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인순 김인태 김일조 김정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경규 김정단 김정덕 김정란 김정렬 김정분 김정석 김정아 김정아 김정에 김정자 김정한 김정의 김제성 김종석 김종숙 김종영 김종환 김중희 김주일 김 준 김중석 김중철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영 김찬수 김재란 김철수 김철중 김철희 김춘희 김태수 김태은 김학수 김학표 김학현 김향숙 김현국 김현숙 김현신 김현화 김혜숙 김화일 김효상 김효찬 김희옥 김희자 김희주 김희진 나귀래 나민자 나민자 나연자 남산자 남순덕 남옥희 남정현 남주희 노덕현 노성일 노성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영준 노승문화 단영숙 탐미대사 대광사 대성사 대지행 덕성원 도영래 도순원 도예린 도원스님 도이환 동명학원원 류지연 류진훈 류해창 류연스님 무량사 무심사 무월주지스님 문경숙 문수홍 문숙희 문임숙 문점숙 문점숙 문정희 문태환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미륵사 민경애 민미자 민선재 민정원 박건웅 박경국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경희 박국임 박기남 박기임 박나리 박남순 박말미아 박주행 박미자 박미희 박민성 박봉국 박봉영 박상섭 박선동 박성택 박성희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자 박승목 박아름 박연신 박영미 박영숙(3) 박영애 박종민 박영준 박옥경 박옥남 박옥숙 박옥애 박원규 박은경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서 박인숙 박인식 박일주 박장미 박재석 박재완 박재노 박정부 박정선 박정숙(2) 박정자(2) 박종림 박종임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찬 박철순(2) 박철홍 박춘미 박춘봉 박태수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주(2) 박형숙 박형재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방명국 방명설 방순자 방장수 방재순 방태관 배광자 배민화 배영숙 배정숙 배현진 배규현 배근혁 백련사 백준혁 백진구 법음스님 법홍사 변영희 변영태 보경 보리암 보문스님 상현스님 서귀포 서미옥 서순옥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정우 서정우 서정자 서준건 서호준 서도범 석영수 석화영 신덕스님 설봉스님 성거사 성민자 성불사 성불사주지스님 성원스님 송호호 손기미 손준현 송동호 송양스님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규 송중화 수원사 신경희 신남선 신덕근 신덕근 신상군 신선희 신성민 신수영 신수호 신영현 신용례 신재학 신조현 신주호 신지호 신창순 신희숙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영애(2) 심영자 심원식 심현보 안영옥 안영우 안영옥 안영자 안정은 안중희 안현준 안효진 약사암 양선희 양세옥 양순조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2) 양정자 양해근 양행선 양원선 양홍영 양희성 양희성 업체유(2) 엄지환 엄태영 엄종희 엄영사 오경란 오경환

오광자 오동근 오승훈 오진재 오용근 오재영 오정애 오지은 옥영식 옥천암 왕산자 용석천 용화사 우림사 우병선 우병수 우신지 우영계 우지에 우진궁 우춘자 원경스님 원옥리 위영란 유경자 유상재 유영미 유영순 유재기 유정숙 유지연 유지호 유태선 유태준 옥성희 윤기홍 윤병덕(2) 윤복순 윤복순 윤석범 윤수영 윤오인 윤원스님 윤정연 윤정일 윤종우 윤채남 윤채남 윤현숙 윤희원 이강남 이강민 이강희 이진우 이경남 이경도 이경애 이광석 이광수 이광훈 이근자 이규달 이규영 이근기 이근태 이기덕 이기승 이기탁 이기현 이기환 이나은 이나영 이대섭 이대원성 이동건 이동격 이동준(2) 이동철 이란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자 이명화 이명희 이미래 이미화 이민서 이보연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목 이상순 이상은 이상준 이상태 이석자 이석호 이성수 이수영 이수옥 이숙경 이순희 이순남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덕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 이요택 이요규 이요원 이요범 이요순 이우윤 이우진 이원상 이원호 이원희 이유순 이윤희 이은정 이은희 이익수 이인숙 이재덕 이정남 이정민 이정순(2) 이정안 이정옥(2) 이정일 이정자 이정주 이정락 이종분 이종분 이종분 이종희 이종희 이종희 이지현(2) 이진선 이창우 이철현 이준근 이준자(2) 이춘선 이태경 이태홍 이태희 이태희 이한희 이혜 이혜송 이향림 이향순 이현배 이현선 이혜경 이희자 이훈노 이희두 이희숙 이희자 이희정 일각스님 일광스님 일인 일진성 임미순 임민비 임연희 임옥빈 임옥성 임원희 임재숙 임재환 임정순 임종국 임지숙 임창현 임춘희 임춘희 임희서 자광사

장경희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운 장안사 장영숙 장영철 장재원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계영 전등사 전명국 전미영 전병수 전상은 전소운 전영정 전영현 전재호 정갑임 정경남 정금란 정길동 정동하 정문스님 정명자 정몽경 정미자 정암스님 정영수 정영선 정용수 정은경 정은영 정인순 정인자 정재평 정정에 정진스님 정창남 정천구 정태순 정희석 정학진 정혜숙 정해순 정 해 정혜숙 조공옥 조광천 조대영 조동제 조동조 조명순 조민규 조병호 조성준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현 조창희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경애 지윤주 진동석 진명스님 진석범 진인스님 채은훈 천병길 천보사 천상봉 천영기 천주암 천지현심 청무스님 청운스님 청일스님 최갑식 최갑희 최병관 최병진 최복순 최성균 최순옥 최순이 최아리 최영숙 최영숙 최영호 최윤희 최재순 최재원 최재윤 최재혁 최정자 최정기 최정미 최정선 최정유 최정희 최정열 최정원 최준원 최창수 최창규 최태준 최현창 최희문 최희숙 최희순 표경희 하기남 하미경 하미희 하삼란 하성미 하수연 하재한 하태선 학림사 한가람 한광호 한기영(2) 한기준 한동원 한미음선원강릉지원 한미음선원광명선원 한미음선원광주지원 한미음선원 뉴욕지원 한미음선원대구지원 한미음선원목포지원 한미음선원문경지원 한미음선원부산지원 한미음선원양양본원 한미음선원울산지원 한미음선원제주지원 한미음선원충주경남지원 한미음선원진주시지원 한미음선원원주지원 한미음선원캐나다지원 한미음선원통영지원 한미음선원포항지원 한세진 한승균 한승화 한영순 한윤진 한은순 한인식 한정갑 한창호 한효정 허남주 허명범 허미옥 허복영 허수자 허주자 허태환 헤카스님 혜륜스님 혜암스님 혜영스님 흥순 흥순희 흥순덕 흥일자 흥인호 흥해의 화경스님 황경록 황경숙 황금영 황은철 황성미 황순희 황용숙 황인옥 황태숙 황향숙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 조작 upgr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6만원 (배송비 포함)
-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질: 편백나무

● 크기: W60cm × D40cm × H28cm

● 특징: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개당 6만원

● 주문: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